

2017 京都宣言

1. はじめに

- 1.1. 2017 年 8 月 26 日、第 9 回日中韓文化大臣会合が日本の京都市で開催された。日本国文部科学大臣林芳正、中国文化部長雒樹剛、大韓民国文化体育観光部長官都鍾煥が出席した。
- 1.2. 我々は、「青島行動プログラム（2015 年～2017 年）」及び「2016 済州宣言」に基づく取組を通じて、3 カ国の文化交流・協力が順調に進展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同時に、これまでの取組による成果を評価し、それを生かした持続可能な発展に向けた取組を進めることの必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した。
- 1.3. 我々は、様々なレベルでの文化交流の進展を通じて、未来志向の三国間関係を構築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の認識を共有した。

2. 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の充実

- 2.1. 我々は、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が都市間の文化交流と各都市の文化の発展に貢献し、それが 3 カ国の国民間の相互理解を促進すること、そしてそれが東アジアの安定と平和繁栄に寄与することを確認し、本事業を継続的に実施することと、更に発展させることについて一致した。
- 2.2. 我々は、2018 年の東アジア文化都市として、日本の金沢市、中国のハルビン市及び韓国の釜山広域市を選出することを決定した。2018 年の三都市間はもとより過去の東アジア文化都市との間で活発な交流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する。

2.3. 我々は、東アジア文化都市間の交流を更に推進するため、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の実施都市の実質的な決定を早めることで一致した。

2.4. 我々は、「2016 済州宣言」において、東アジア文化都市ネットワークのような協力体系の必要性について共有された認識に基づき、東アジア文化都市のネットワークの強化に取り組むことで一致した。そして、ネットワーク強化のための具体策を検討するため、これまでの東アジア文化都市選定都市における取組を評価するとともに、アーカイブの構築やロゴマークの策定、ASEAN 文化都市や欧州文化首都との連携方策など、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の今後の充実方策を検討するため、本会合の下に有識者会議を設置することで一致した。

2.5. 我々は、「東アジア文化都市サミット」の開催を歓迎する。サミットにおいて、これまでの事業の内容が共有され評価され、文化事業の持続可能な発展に向けた方策が検討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

3. 三国間の芸術家・青少年交流の促進

3.1. 我々は、日中韓芸術祭、東アジア文化交流使、日中韓文化芸術教育フォーラムのような国が主導する共同事業が継続して実施され3カ国の文化交流を着実に推進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上記のような3カ国の芸術家がそれぞれの文化を発信し、交流する取組を引き続き継続することを確認した。

3.2. 我々は、日中韓学生アニメーション共同制作等事業のような三国の芸術系大学が主体となった取組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を高く評価し、芸術系大学間の交流をはじめとする若い世代の芸術家の交流を奨励することを確認した。

4. オリンピックの機会に合わせた日中韓共同文化プログラムの実施による文化交流の拡大

- 4.1. 我々は、2018年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2020年東京夏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2022年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が3カ国で連続開催され、世界中の視線が3カ国に集まる機会を捉えて、共同文化プログラムを積極的に展開することを再確認した。
- 4.2. 我々は、来年開催される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に向けた共同文化プログラムとして、日中韓「虎」美術展や書の展覧会、演劇公演、伝統劇や障害者芸術による祭典などを協力して実施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た。
- 4.3. 我々は、東京夏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に向けた共同文化プログラムの企画を行うに当たって緊密に協力することに合意した。

5. 文化施設間の交流の促進

- 5.1. 我々は、日中韓国立博物館長会議が継続して開催され、3カ国の国立博物館における共同企画展が着実に開催されていることを歓迎するとともに、そのような取組を今後も引き続き、実施していくことについて合意した。
- 5.2. 我々は、美術館・博物館、劇場、アーツスペース等の文化施設同士が3カ国の交流を促進するための取組を進める必要性を認識し、そのための取組を各国において推進することとし、次回本会合において策定される行動計画に記載することに合意した。

6. 文化遺産の保護・継承の推進

6.1. 我々は、経済開発や度重なる自然災害を越えて保護・継承してきた有形・無形の文化遺産を有している。我々は、これらの文化遺産が、国と国との対話を促進するものとな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とともに、世界の国々における文化遺産の保護・継承の取組に積極的に貢献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た。

6.2. 我々は、無形文化遺産が人々の生活と密接に関連し、人々の間の交流及び理解を確保する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を認識し、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無形文化遺産の保護・継承に貢献するよう、ユネスコのアジア太平洋地域無形文化遺産カテゴリー2センターの活動を支援することで一致した。

7. 文化産業分野及び著作権保護への協力

7.1. 我々は、文化の発展が経済活動に好影響を与え、文化産業の発展を促し、文化産業の発展が文化の発展に寄与するという好循環を生み出す点につき認識を共有した。

7.2. 我々は、文化芸術の振興と文化産業の持続的な成長と発展の不可欠な基盤である著作権保護の重要性を再認識するとともに、正規品、正規版コンテンツの流通促進と海賊版対策のため3カ国による協力と交流を引き続き強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た。

8. 2018年の大臣会合に向けて

2015年に採択された「青島行動プログラム（2015年～2017年）」が本年末に期限を満了させることから、我々は次回日中韓文化大臣会合において新たな3カ年の行動計画を策定することとした。

9. おわりに

我々は、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TCS）が日中韓文化大臣会合に参画することを歓迎し、3カ国の文化協力の促進のために、TCS と密に協働していくこととした。

2018 年「第 10 回日中韓文化大臣会合」は、中国で開催することとした。会議の日程と議題など追加事項のための局長級事前会議は開催国で主催することとした。

日本国
文部科学大臣

中華人民共和国
文化部長

大韓民国
文化体育観光部長官

第九次中日韩文化部长会议 京都共同文件（草案）

1.序言

1.1 第九次中日韩文化部长会议于 2017 年 8 月 26 日在日本京都召开，中国文化部部长雒树刚、日本文部科学大臣林芳正、韩国文化体育观光部长官都钟焕出席会议。

1.2 我们回顾了近 2 年来围绕《青岛行动计划（2015-2017 年）》以及《2016 济州共同文件》开展的文化交流项目，并对迄今完成的工作进行了评估，我们一致认为需要进一步加强文化交流与合作，增进三国友好关系。

1.3 我们认为，三国应通过开展多层次、宽领域的文化交流，构建面向未来的三国关系。

2.加强“东亚文化之都”品牌建设

2.1 我们相信，“东亚文化之都”对促进城市间文化交流，推动各城市文化发展，增进三国人民间的相互理解具有重要作用，也为东亚地区的和平、稳定和繁荣作出了积极贡献。我们一致同意继续推动“东亚文化之都”品牌建设与发展。

2.2 我们评选出中国哈尔滨市、日本金泽市、韩国釜山市当选 2018 年“东亚文化之都”，希望推动上述三个城市之间以及上述城市与此前当选“东亚文化之都”的城市之间开

展文化交流。

2.3 我们一致认为，为进一步推动三国城市间交流与合作，应尽早确定“东亚文化之都”当选城市。

2.4 根据《2016 济州共同文件》中提及的关于建立“东亚文化之都”合作体系（如“东亚文化之都”联盟）的相关内容，我们一致认为三国应共同努力，巩固已有的“东亚文化之都”城市网络。在评估迄今为止“东亚文化之都”当选城市所做工作的基础上，我们将继续探讨并制定具体方案，加强“东亚文化之都”城市网络建设。我们一致同意在三国部长会议的指导下成立“东亚文化之都”专家组，讨论关于设立文献中心、设计品牌标识、加强“东亚文化之都”与“东盟文化城市”、“欧洲文化之都”交流方式方法等“东亚文化之都”品牌相关的下一步发展规划。

2.5 我们欢迎举办“东亚文化之都”城市峰会，共同分享和评估项目进展，并就项目的可持续发展进行探讨。

3.加强三国艺术家与青年交流

3.1 我们一致认为，中日韩艺术节、东亚文化交流使、中日韩文化艺术教育论坛等三国目前主导开展的项目有助于促进三国文化交流，并将继续支持推动三国艺术家的合作，推广三国文化项目。

3.2 我们高度评价如“中日韩学生联合制作动漫项目”

等三国艺术院校牵头举办的活动，并将继续支持推动艺术院校及青年艺术家的交流。

4.以奥运会为契机，推动三国文化交流，联合举办中日韩文化项目

4.1 2018 年将在韩国平昌举办冬奥会，2020 年将在日本东京举办奥运会，2022 年将在中国北京举办冬奥会，上述活动的举办将使三国成为世界瞩目的焦点。鉴此，我们一致同意以奥运为契机联合举办文化活动。

4.2 我们一致同意以 2018 平昌冬奥会、冬残奥会为契机，联合举办文化活动，如美术展、书法展览、戏剧表演、传统剧目表演和残疾人艺术节等。

4.3 我们一致同意在东京奥运会、残奥会和北京冬奥会、冬残奥会期间密切合作，联合组织开展文化活动。

5.加强文化机构间的交流

5.1 我们欢迎继续召开“中日韩国家博物馆馆长会议”，鼓励三国国家博物馆继续举办联合展览。我们支持此类活动的持续开展。

5.2 我们一致认为需要加强三国美术馆、博物馆、剧院等文化机构间的交流，三国将各自推动开展此类交流活动，并将相关合作成果写入下一次文化部长会议成果文件中。

6.文化遗产的传承与保护

6.1 我们的文化遗产历经了城市现代化建设的冲击和自然灾害的破坏，留存至今弥足珍贵。我们重申，文化遗产在推动各国文化对话中发挥着重要作用，明确三国将继续为世界各国保护和传承文化遗产的事业做出贡献。

6.2 我们认识到非物质文化遗产与人们的生活息息相关，在增进人与人的交流与理解方面发挥着重要作用。我们同意支持联合国教科文组织各亚太地区非物质文化遗产二类中心继续开展保护和传承亚太地区非物质文化遗产的活动。

7.文化产业和版权保护等领域的合作

7.1 我们相信，文化发展对经济活动会产生积极影响，促进文化产业的发展，同时文化产业的发展又会推动文化发展，形成良性循环。

7.2 我们重申版权保护的重要性，版权保护是文化艺术发展和文化产业持续繁荣的重要基础。我们同意继续加强反盗版行为的合作与交流，促进正版产品和内容的流通。

8.关于 2018 年文化部长会议

鉴于 2015 年通过的《青岛行动计划》将于今年年底到

期，我们商定于下一次中日韩文化部长会议期间签署通过新的三年期《行动计划》。

9.结束语

我们欢迎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TCS）参与中日韩文化部长会议，为促进三国文化合作，将与TCS保持密切协作。

第十次中日韩文化部长会议将于2018年在中国举办。为更好安排协调会议日程和议程，中方将提前举办局级高官会。

签署人：

中华人民共和国
文化部部长

日本国
文部科学大臣

大韩民国
文化体育观光部长官

2017 교토선언(안)

1. 머리말

- 1.1 2017년 8월 26일, 제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都鍾煥), 일본국 문부과학대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중국 문화부 부장 류수강(雒樹剛)이 참석하였다.
- 1.2 우리는 「칭다오 실행 계획(2015년~2017년)」 및 「2016 제주선언」에 근거한 사업을 통하여 3개국의 문화 교류·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살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함께 인식하였다.
- 1.3 우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문화 교류를 진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삼국 관계를 구축 강화할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였다.

2.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충실화

- 2.1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도시 간의 문화 교류와 각 도시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3개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 2.2 우리는 일본의 가나자와시, 중국의 하얼빈시, 한국의 부산시를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였다.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3개 도시 간은 물론

이고 이전에 선정된 동아시아 문화도시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기를 기대한다.

2.3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실시할 때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실질적 선정 시기를 전년도보다 더 앞당기는 것에 합의하였다.

2.4 우리는 지난 2016년 「제주선언」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금까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자료(아카이브) 구축, 상징(로고) 마련, ASEAN문화도시와 유럽문화수도와의 연계방안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5 우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정상회의」개최를 환영한다. 정상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평가하여 문화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3. 삼국 간 예술가·청소년 교류 촉진

3.1 우리는 한중일 예술제, 동아시아 문화 교류사절단, 한중일 문화예술 교육 포럼과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3개국의 문화 교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3개국의 예술가가 각각의 문화를 홍보하고 교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3.2 우리는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등과 같은 사업을 3개국의 예술대

학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예술대학 간의 교류를 비롯한 젊은 세대 예술가의 교류를 장려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4. 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화 교류 확대와 한중일 공동 문화 프로그램 실시

4.1 우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3개국에서 연속 개최되어 전 세계의 시선이 3국에 집중되는 기회를 계기로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4.2 우리는 내년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한 공동 문화프로그램으로서 한중일 호랑이 미술전과 서예 전시회, 연극 공연, 전통극 공연, 장애인 예술가 축제 등을 협력하여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3 우리는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한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5. 문화 시설 간 교류 촉진

5.1 우리는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3개국의 국립박물관 공동 기획전이 충실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사업을 향후에도 계속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5.2 우리는 미술관·박물관, 극장, 문화 공간 등의 문화 시설 간 3개국 교류 사업을 촉진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각국에서 사업을 착수하여 차기 회의

에서 채택될 실행 계획에 담기로 합의하였다.

6. 문화유산의 보호·계승의 추진

6.1 우리는 무분별한 경제 개발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보호·계승해 온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이 국가 간 대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 세계 국가 간의 문화유산 보호·계승을 위한 대처에 적극 공헌하기로 하였다.

6.2 우리는 무형 문화유산이 사람들의 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들 간에 교류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계승에 공헌하도록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화유산 카테고리 2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7. 문화 산업 분야 및 저작권 보호 협력

7.1 우리는 문화의 발전이 경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 산업의 발전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창출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7.2 우리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품 콘텐츠의 유통 증진과 불법 복제 저작물에 대한 대응을 위한 3국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8. 2018년 장관 회의를 위하여 2015년에 채택된 「칭다오 실행 계획(2015년~2017

년)」이 2017년 말에 만료되므로 우리는 차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3년간의
실행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하였다.

9. 끝으로, 우리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가하는 것
을 환영하고 3국의 문화협력 촉진을 위해 TCS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
년 「제10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회의의 일정과 의
제 등 추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사전 회의는 개최국에서 주최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본국 문부과학대신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부장
